

1가구1주택 정책·자금조달 애로...지방 주택사업 '악화'

광주 경기전망지수 반등 한달만에 하락 70선 유지 전남, 제주 이어 최하위권...매수수요 수도권 쏠림

광주·전남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달 반등 이후 다시 하락했고 전남은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면서 지역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광

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73.6으로 전월보다 2.8p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던 광주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92.8)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과 함께 하락했다.

전남은 63.6으로 전월(62.5) 대비 1.1p 올랐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5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주산업 관계자는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 매수수요가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등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사업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5p 상승한 77.1로 조사됐다. 수도권(78.1)은 5.2p 올랐는데 서울(97.5, 15.0p ↑), 경기(76.3, 7.9p ↑)의 상승이 주요했다. 반면 인천(60.6, 7.2p ↓)은 하락했다.

수도권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졌다는 것이 주산업의 분석이다.

서울은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 증권시장 투자자의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도 사업자들의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로 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경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크게 상승했던 비수도권(76.9)은 1.7p 하락했다. 광역시(80.4) 2.4p, 도 지역(74.3) 1.1p 하락 전망됐다.

광역시에는 울산(92.8, 8.2p ↑)만 상승하고, 세종(84.6, 7.7p ↓), 대구(79.1, 7.2p ↓), 대전(82.3, 4.3p ↓), 광주(73.6, 2.8p ↓), 부산(70.0, 0.5p ↓)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남(78.5, 5.8p ↑), 제주(60.0, 3.8p ↑), 경북(85.7, 1.1p ↑), 전남(63.6, 1.1p ↑) 순으로 상승하고, 강원

(69.2, 10.8p ↓), 경남(85.7, 5.2p ↓), 전북(76.9, 4.9p ↓) 순으로 하락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3.4p 하락한 69.6으로 전망됐으며, 자재수급지수는 10.6p 상승한 77.7로 집계됐다.

주산업은 시장 급리 상승에 따른 우려와 사업자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진 점 등에 따라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큰 하락 폭에 따른 지지효과와 중등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상승했다. 연세출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후 1시 15분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울촌산단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전용기지 준공

현대스틸산업 조성...연간 6만7000t 생산 능력 갖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울촌1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전용기지가 준공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오후 1시 15분 현대스틸산업 울촌공장에서 해상 풍력 전용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현대건설 관계자와 정준호 국회의원,

경제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스틸산업이 3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해상풍력 전용설비는 높이 55m, 폭 50m의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2개 동을 갖춰 대조립 환경을 확보했으며 15MW급 초대형 하부구조물(자켓) 제작 및 마감도장 공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마감장은 높이가 20m로 10MW급

이하 제작만 가능했다. 현대스틸산업은 높이 96m, 폭 50m에 350t급 크레인 4기를 결합해 최대 1200t의 구조물을 인양하는 대형 인양장비(리프팅 타워)도 국내 최초로 갖췄다. 기존 600t에서 2배인 1200t의 인양능력으로 15MW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과 조립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이번 설비 확장으로 연간 6만7000t(자켓 27기)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 울촌공장은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분야에서 독보

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현대스틸산업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프로젝트(3조 4000억원) 가운데 6100억원 규모의 하부구조물을 제작한다.

구중공 경제청장은 "현대스틸산업 풍력 전용기지 준공을 계기로 광양만권이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기관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규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경전선 고속화 공론화...남부경제권 논의

광주·부산·경남·전남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공동 개최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모델인 남부경제권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경전선 고속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주연구원과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전남연구원은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프라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순정-순천복선전철화와 고속화 추진을 통해 광주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부울경 제조·물류 기반을 연계하고, 영·호남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서세욱 지방살리기부울경 캠프 대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부부장, 김중학 국토연구원 박사, 장준석 광주연구원 박사, 박기준 경남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전선 고속화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고속화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 과제와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동서축 철도망의 기능을 강화해 남부권 산업·관광·생활권의 연결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황성웅 광주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과 부울경·대경권을 잇는 남부경제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부산·대구 거점도시 간 협력을 기반으로 경전선·달빛철도 등 동서 연결망을 확충하고, 인공지능 전환(AIX)·문화관광·인재협력 중심의 남부권 신성장축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부산연구원 박사는 경전선 전철화·고속화가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남부경제권 핵심 인

사홍승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구축을 위해서는 서남권과 동남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통 기반 마련이 중요하며, 경전선 고속화는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이 실제 국가 철도정책과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 이어져 남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0% ↓ 항공유 하락에 27~19단계 적용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발권 국제선 항공유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20% 이상 낮아진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발권 기준 국제선 항공유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단계 내려갔다.

이는 7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16일 338.3센트(배럴당 142.09달러·5월 16일~6월 15일 기준)로 1개월 전 대비 17.5%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중등전정 여파로 지난 5월 발권 기준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갔다가 2개월 연속 내려갔다. 항공유 가격은 2개월 전(16일 511.21센트)과 비교하면 33.8% 하락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 조정에 기반해 구체적인 유류할증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1500원, 최대 45만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4만6400원에서 34만4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유류할증료 최저 구간은 단거리인 인천~선양·칭다오·다렌·엔지·후쿠오카 노선에 적용된다. 최고 구간은 인천~뉴욕·멜버른·보스턴·애틀랜타 등 장거리 미주 노선에 부과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비대면 기업 'Easy-One 보증'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지난 15일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녹색여성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중훈 광주은행 부행장과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비대면 기반 보증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 은행 연계 보증 상품인 'Easy-One 보증'을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부터 대출 약정,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경영에 힘쓰는 기업,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 무탄소 에너지 발전기업 등에 대한 녹색여성



광주은행은 지난 15일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녹색여성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 협약 하반기 목표...녹색여성 금융 지원 확대도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부담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따른 녹색여성신직할 여부를 판단해 은행 '녹색여성 검토서'를 제공하며, 광주은행은 우대금리를 지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기업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경영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연구원과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전남연구원은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다목적강당에서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연구원

광주관광공사, 개별자율여행 상품 개발 나서 'FIT 상품 공모전' 22일까지 접수...3개 상품 선정

광주관광공사가 지역의 역사, 문화, 미식, 예술, 스포츠, 기타 로컬 콘텐츠를 카울 사업자를 찾는다.

광주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오는 22일 오후 4시까지 '2026 광주 FIT 상품 공모전'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 고유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맞춤형 관광상품을 발굴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사업체다. 개별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참여와 컨소시엄 참여가 모두 가능하다. 식당, 카페, 공방, 소품 등 여러 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공모 분야는 역사문화, 전통·생활문화,

미식, 예술, 스포츠, 기타 로컬 콘텐츠다. 상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방문 거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사업장 한 곳에서 끝나는 단순 체험이나 예약·판매 대행 상품은 제외된다. 지역 상권을 잇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 핵심이다.

최종 선정된 3개 상품에는 전문가 컨설팅 2회와 상품당 최대 6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카드뉴스, 리플릿, 웹스, 블로그 콘텐츠 등 홍보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신청은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jitourbiz3@gito.or.kr)로 접수, 문의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062-367-0645)로 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